

## 2023년 축산환경조사 결과 발표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15천 호 대상으로 방문 조사
- 신뢰성 높은 현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

축산환경조사는 종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악취저감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실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조사방법 : '22년부터 5년 주기 전수조사, 그 외 표본조사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리, 돼지 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탁 처리 비중 : 한·육우 20%, 젖소 33%, 돼지 62%, 닭 81%, 오리 72%

발생한 가축분뇨의 약 73%와 12%는 각각 퇴비와 액비로 활용되며, 특히 돼지 분뇨를 제외한 대다수 분뇨는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단위: 천톤, %) >

축종	합계	자가처리					위탁처리			
		소계	자원화		정화	기타	소계	자원화		정화
			퇴비	액비				퇴비	액비	
합계	50,871 (100)	26,190 (51.5)	19,300 (37.9)	2,642 (5.2)	4,070 (8.0)	179 (0.4)	24,681 (48.5)	17,723 (34.8)	3,361 (6.6)	3,597 (7.1)
한·육우	17,511 (100)	14,089 (80.5)	14,067 (80.3)	-	-	22 (0.1)	3,423 (19.5)	3,423 (19.5)	-	-
젖소	3,923 (100)	2,618 (66.7)	2,597 (66.2)	-	-	21 (0.5)	1,305 (33.3)	1,305 (33.3)	-	-
돼지	19,679 (100)	7,528 (38.3)	685 (3.5)	2,642 (13.4)	4,070 (20.7)	131 (0.7)	12,150 (61.7)	5,193 (26.4)	3,361 (17.1)	3,597 (18.3)
닭	8,761 (100)	1,675 (19.1)	1,673 (19.1)	-	-	1 (0.0)	7,087 (80.9)	7,087 (80.9)	-	-
오리	997 (100)	280 (28.1)	277 (27.8)	-	-	3 (0.3)	716 (71.9)	716 (71.9)	-	-

한편, 악취저감을 위해 농가의 55%(돼지 86, 닭 59 등)가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농가의 62%는 다양한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사 내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결과, 한·육우의 경우 소형냉동고, 젖소는 원유냉각기, 돼지는 급이기, 닭은 환경제어기, 오리는 소형냉동고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두당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kWh/년)은 젖소(1,061), 한·육우(842), 돼지(112), 닭(49), 오리(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사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대부분은 면세유이고, 축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름철 차광막 설치, 단열재 시공,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산환경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옥 축산정책관은 “축산환경조사를 통해 축산현장 실태에 대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축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축산환경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담당 부서 <총괄>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044-201-2364)
담당 부서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	책임자	팀 장	장철웅 (044-550-5065)
		담당자	대 리	김은종 (044-550-506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붙임 2023년 축산환경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 □ 개 요

- (목적) 현장 여건을 반영한 축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정책 수립·시행에 활용
- (조사대상)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장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주요 5개 축종 사육농장 표본\*(약 15천호)
  - \* (표본추출 방법) 축종, 사육규모, 시도에 따른 층화변수를 설정하여 표본 추출
- (조사방법) 현장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유선조사 병행
- (조사항목) 일반현황, 시설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및 방역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

### □ 주요 결과

- (농장주 일반현황) 성별 비율은 남자 88%, 여자 12,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사육경력은 30년 이상(40%)이 가장 많고 평균 사육경력은 25년임
- (근로자 수) 연간 전체 근로자 수 164,187명 중 내국인은 145,396명 (89%), 외국인인 18,791(11) 임

< 축산농장 근로자 현황 > [명]

구 분	상시근로자			기간근로자			합 계		
	내국	외국	합계	내국	외국	합계	내국	외국	총계
전체 근로자수	128,902	15,983	144,885	16,494	2,808	19,302	145,396	18,791	164,187

- (가축분뇨 배출) 가축분뇨 배출량 비중은 돼지가 39%(19,679천톤/년)로 가장 높고, 한·육우(34%), 닭(17), 젖소(8), 오리(2) 순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 처리) 한·육우(81%), 젖소(67) 분뇨는 주로 자가처리하고, 닭(81), 오리(72), 돼지(62) 분뇨는 주로 위탁처리함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단위: 천톤, %)

축종	합계	자가처리					위탁처리			
		소계	자원화		정화	기타	소계	자원화		정화
			퇴비	액비				퇴비	액비	
합계	50,871 (100)	26,190 (51.5)	19,300 (37.9)	2,642 (5.2)	4,070 (8.0)	179 (0.4)	24,681 (48.5)	17,723 (34.8)	3,361 (6.6)	3,597 (7.1)
한·육우	17,511 (100)	14,089 (80.5)	14,067 (80.3)	-	-	22 (0.1)	3,423 (19.5)	3,423 (19.5)	-	-
젖소	3,923 (100)	2,618 (66.7)	2,597 (66.2)	-	-	21 (0.5)	1,305 (33.3)	1,305 (33.3)	-	-
돼지	19,679 (100)	7,528 (38.3)	685 (3.5)	2,642 (13.4)	4,070 (20.7)	131 (0.7)	12,150 (61.7)	5,193 (26.4)	3,361 (17.1)	3,597 (18.3)
닭	8,761 (100)	1,675 (19.1)	1,673 (19.1)	-	-	1 (0.0)	7,087 (80.9)	7,087 (80.9)	-	-
오리	997 (100)	280 (28.1)	277 (27.8)	-	-	3 (0.3)	716 (71.9)	716 (71.9)	-	-

- (악취저감 방법) 악취저감을 위해 농가의 55%(돼지 86, 닭 59 등)가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시설을 보유, 농가의 62%가 다양한 미생물제 사용

< 축사 내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현황 >

(단위: %, 복수응답)

구 분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스템	기타*	없음
돼지	73.8	4.5	3.7	3.5	14.4
닭	56.3	-	-	2.5	41.2

\* 바이오필터, 습식여과, 활성탄 등

< 악취개선제 살포 현황 >

(단위: %, 복수응답)

미생물제	생균제	효소제	비미생물제 (환경개선제)	기타	없음
61.5	12.1	2.7	1.9	0.5	21.2

- (축종별 전력 소비량) 두당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은 젖소가 1,061kWh/년으로 가장 많고, 한·육우(842kWh/년), 돼지(112), 닭(49), 오리(11) 순임
- (축종별 장비이용) 한·육우는 소형냉동고, 젖소는 원유냉각기, 돼지는 급이기, 닭은 환경제어기, 오리는 소형냉동고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